

블랑팡, 레이디버드 컬러즈를 선보이다

일곱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만날 수 있는 부드럽고 생기 넘치는 레이디버드 컬러즈(Ladybird Colors)가 블랑팡의 역사 속 중요한 타임피스에 경의를 표한다. 자유, 우아함, 성공의 상징인 레이디버드 워치는 1956 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운드 무브먼트를 탑재하며 워치메이킹 부문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이 놀라운 성과는 대담한 듀오 베티 피슈테르(Betty Fiechter)와 그녀의 조카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의 합작품이었다. 함께 매뉴팩처를 운영한 그들의 비전과 능력은 몇몇 여성용 모델, 1953 년 런칭한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 피프티 패덤즈 등 여러가지 가시적 결과물로 이어졌다.

항상 열정적으로 묘사되는 베티 피슈테르는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기질과 체격에 있어서는 강인한 특성을 지닌 그녀는 한편으로는 소박하고 부드러웠다. 워치메이킹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여성 역시 제대로 차려 입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타임피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레이디버드 컬러즈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녀를 닮았다. 블랑팡 매뉴팩처는 이 타임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담함과 섬세함 사이에서 이상적인 균형을 추구했다.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얼 위에는 살짝 둥글게 처리한 아플리케 골드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를 올렸고, 숫자 12를 얹은 비대칭 아워 서클로 마무리했다. 다이아몬드 밴드가 아워마커를 강조하는 한편 시와 분을 보여주는 바늘은 블랑팡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안을 비운 세이지 잎 형태를 띠고 있다.

레드 골드 혹은 화이트 골드 케이스 역시 조화로운 비율을 고려해 디자인되었다. 34.9mm 사이즈가 시계의 섬세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며 동시에 다양한 사이즈의 손목과도 부드럽게 어우러진다. 또한 2캐럿이 넘는 59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 러그, 크라운과 함께 더욱 돋보인다.

진정한 주얼리 워치인 레이디버드 컬러즈는 하이엔드 켄세팅 기법을 적용하며 모든 요소를 정교하게 손으로 제작했다. 이를 위해 만들어낸 구멍에 켄스톤을 세팅하기 전 켄세터가 조각용 등근 끌을 사용해 금속을 비운 후 다이아몬드 양쪽으로 정교하게 잘라낸 얇은 귀금속 밴드(필레, fillet)를 만들어낸다. “리커팅(recutting)”으로 알려진 이 단계는 거울 효과를 만들어내며 반짝임을 극대화한다. 다이아몬드는 파셋(facet, 깎인 단면)이 조화를 이루며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교하게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나서 장인이 켄스톤 위로 귀금속 비즈를 밀어내며 켄스톤을 고정한다. 더욱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 비즈 사이 공간을 일일이 손으로 작업한다. 스톤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밀함이 요구된다. 가장 숙련된 켄세터만이 일정한 간격, 그리고 탁월한 퀄리티와 화려함의 징표인 비즈와 필레를 만들어낼 수 있다.

레이디버드 컬러즈의 다이얼과 케이스에 적용한 높은 수준의 피니싱은 인하우스 칼리버 1153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무브먼트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과 더불어 얇은 두께와 넉넉한 4일 파워리저브가 특징이다. 구조와 대비에 있어 풍성함을 보여주는 무브먼트는 서큘러 그레인 처리한 메인플레이트에 챔퍼링, 새틴 브러싱 처리하고 코트 드 제네브 모티브를 장식한 브리지가 함께 어우러진다. 이러한 미학적 디테일을 최대한 자세히 감상할 수 있도록 블랑팡은 시계 페이스의 서큘러 패턴과 조화를 이루는 오픈워크 골드 로터를 개발했다. 크라운에 세팅한 로즈-컷 다이아몬드 덕분에 앞과 뒤 모두에서 반짝임을 발산한다.

레이디버드 컬러즈는 블랑팡의 여성 워치 컬렉션에 있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일곱 가지의 컬러풀한 케이스와 스트랩 조합을 통해 신선한 우아함을 선사한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레드 골드 모델은 피콕 그린, 미드나이트 블루 혹은 새틴 화이트 악어가죽 스트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화이트 골드 버전은 레몬 옐로, 탠저린 오렌지, 라일락 혹은 새틴 화이트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할 수 있다. 모델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컬러가 다양성, 열정, 즐거움을 상징한다. 각각의 스트랩은 9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드 핀 버클 혹은 폴딩 클래스프를 갖추고 있다.

블랑팡, 여성을 위한 워치메이커

블랑팡은 1930년부터 최초의 여성을 위한 셀프와인딩 손목시계 롤스(Rolls)를 선보이며 여성 시계 역사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1956년 블랑팡은 당시 가장 작은 라운드 무브먼트를 탑재한 레이디버드 모델을 공개했다. 여성들도 기계식 시계의 기술력과 매력을 사랑한다고 믿은 블랑팡은 기존에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여성을 위한 무브먼트를 만들며 계속해서 혁신을 꾀했다.

여성 시계와 함께 한 블랑팡의 모험에 있어 1933년 처음으로 워치메이킹 기업의 수장이 된 여성인 베티 피슈테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블랑팡은 그녀의 지성과 선구적 정신을 통해 주얼리 워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덕분에 세계적 명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

오늘날 블랑팡은 여성 시계 컬렉션에 "레이디버드"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이며 아이코닉한 레이디버드 타임피스에 경의를 표한다. 정제되고 혁신적인 레이디버드 컬렉션은 블랑팡의 타임리스한 가치를 충실히 고수하고 있다. 손으로 장식하고 조립한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아름답게 피니싱한 이 시계들은 우아함과 복잡한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완벽하게 조화시킨다. 레이디버드 타임피스는 단순히 남성 시계 사이즈를 축소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라 현대 여성들의 소망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아름다움이라는 목적을 위해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것이다.